고려여행사(K. T. I.)
○IATA 공인대리점
○대한항공 대리점
(213) 385- 0367 (7시후)459-3348
3554 W. 8th ST. L. A. CA. 90005

미국소식
(일간) 한국일보 나성지사 발행 487—5324~25

극동 여행사
○I. A. T. A. (국제항공운송협회) 공인대리점
○KAL 대리점 ○모국방문 주 2 회
○가족 초청 및 여행수속 대행
TEL: 936-6218, 532-0292 (오후 8 시후)
4207 W. OLYMPIC BLVD. L. A. CA. 90019

어린이 고추사건

고소 取下 될듯

담당검사:사건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박총영사:법원에 서한보내 선처요망

○…… 어려운처지에빠진 교포를구하겠다는 온정의물결은 ……○
○…… 마침내 열매를맺게 되었다. 『어린이고추사건』으로 ……○
○…… 구속까지되었던 두교포의억울함을 풀기위해나선 한 ……○
○…… 국과미국인관계자들의 열성어린노력은 사건담당법관 ……○
○…… 의마음을움직여 고소취하의단계까지 이르렀다. ……○

사건보도한 본『미국소식』 소명자료로서 법원이 채택

3일상오 2번째로열린재판에서 담당검사는 미국인목사 변호사와 두한국인목사로부터 증언을듣고는 『자신은 이번사건을 충분히이해 공소를취하할뜻이있다고』고밝혀고 『곧 피해자가족을 만나 고소를취하해줄것을 요청하겠다』고말했다.

이에앞서 박영총영사는 2일하오 모리오 후꾸도판사에게 『이번사건은 생활과풍습의차이에서 발생한것이지 절대로 범죄행위가 될수없을것』이라는 내용의서신을 띄운바있다.

특별히 이번사건을 맡고있는 레자시번 호사도 1인당 변호비용 1천달러로 두사람에모두 2천달러가 되는것을 한사람에 1백달러씩 모두 2백달러만받기로하고 변호를 나서는등 깊은노력을아끼지 않았다.

3일상오 토랜스퓨니시판코트에 서열린 두번째재판에는 제임스 킹크랜목사(탬플배프티스트교회) 로널드 레자시변호사 권영배목사(아시언컴뮤니티서비스센터매니저) 이금식목사(남가주한인교회)와 두피소자가 참석했다.

그런데 처음 이번사건은형법 제2백88조 (별항참조) 의중범죄로 기소가되었으나 그동안 권영배목사가 한국일보 미국소식에 실렸던기사를 영문으로번역 담당검사와판사에 전달한후에 다시경범죄에해당되는 형법제6백47조 A항으로죄목이바뀐 것이다.

이날재판에서 담당검사는 미국인목사 제임스킹크랜씨에게 피소자와 어떤관계인가를물었는데 킹크랜목사는 『나는15년간 동남아에서 선교활동을 한적이있어 이번사건을충분히 이해할수가 있어서 도와주고싶을따름』이라고답변했다.

또한 레자시변호사도 2년간한국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근무한적이 있어서한국내의풍습에대해서 잘안다』고 말하고 『범죄가아니라 풍습의차이에서 발생한 이번사건을 검사의재량으로 공소취하를해줄것을바란다』고 변호를했다.

또 권영배목사도 『앞으로 이런사건이 발생하지않도록 각 단체에서 계몽중이며또 한국정부에서도 미국에새로 오는사람에 이러한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충분히 교육을시키고있다』고말하고 『지금 전교포들이 이번사건을도와주려고나서고있다』고덧붙였다.

이자리에서 담당검사는나는이번사건에대해 공소취하할뜻이있으나 제소자가 이를받아들이지않을수도 있으므로 곧 피해자가족을만나 고소취하를해줄것을 좋을하겠다고밝혔다.

그런데 3번째재판은19일(목요일) 상오 9시에 다시열리게되는데 그전에 담당검사가 직접 제소자가족을만나서 그뜻을 전달할것이며 곧 그결과를 레자시 변호사에게 통보해주기로한것이다.

2개월전에도 토랜스퓨니시팔코트에는 어린이고추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는가해자가 패소를해서 징역을산바있다.

이번고추사건에 적용되었던 두가지형법을보면 다음과같다.

형법제2백88조—14세이하의 소년소녀몸에 접촉이있어서 성만족을느낄때면 1년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주립형무소에간다.

형법제6백47조A항—18세이하의 어린이에 접촉이있어서 화를내낸한다면 5백달러의벌금이나 6개월간의 징역 또는 5백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간의징역을 병과할수있다.

◆고령자를위한활동—6천여 한인고령자들을위한 기금조달에필요한활동이 간단없이 계속되고있다. 3일밤 시내노인회사무실에서는 20여명의 한인고령자위원회관계자들이 모여 LA카운티당국자로부터 노인들교통편의제공에따르는 기금염달전망등에대한 의견을들었다.

기금신청 대책논의
고령자 사업위원회 에서

고령자사업위원회 (회장권희상) 에서는 3일하오 7시부터 노인회사무실 (2716엘렌데일플레이스) 에서모임을갖고 카운티노동청 전문가로부터 이에대한의견을 들었다

이자리에는 양회직씨(한인회회장당선) 최영환목사 김기준부인회회장 김신찬연합대학동문회간사 문성옥노인회회장등 20명이참석 내년도사업기금신청에대한 대책을논의했다.

그런데 고령자사업위원회에서는 제1차로 노인들의영양식에대한기금으로 4만4천달라를 신청하는등 2번이나요구를했으나(1)신청기간이급박했고(2)전교포의지원이없다는이유로 거절된바 있다

이날 카운티 노동청의조정관 다나까씨로부터 현황을들었는데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은 받는일은 어려운일이나 전한인사회의 지원을받으면가능하다』고말했다. 이자리에참석했던양회직씨와 송종득박사는 앞으로 복지혜택을받는일에 적극 협조해줄것을부탁했다.

이에앞서 2번의기금신청서를 작성했던 한덕수씨(한미사회보건교육회회장)으로부터경과보고를 들었다.

한편이회 의를 주재했던 권희상목사는『앞으로 연방정부의 기금신청에는 한인회나한인연합회의 협조로서만 이가능하다』고말하고 전교포를돕는일에 각기 그특성을 살려노력하자』고말했다.

이자리에참석했던 인사들은다음과같다.

▲권희상▲양회직▲이정선▲송종두▲김기성▲김신찬▲문성옥▲김기순▲김동호여사▲오재인▲프랭크장▲최영환▲이병간▲심복근.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서울코릴』합창단 바리톤 최인달씨

오는7일 시내스카티쉬 라이트 오디터리움에서 개최되는 서울코랄 창단공연 독창순서를맡은 바리톤최인달씨는 교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을까두렵다면서 겸손해했다.

『1962년 연세대학교성악과를졸업한후 1년있다 가해외에나왔으니 금년으로 꼭9년째가 되는군요. 지난5월초 귀국할까했다가 계획이변경되어 12월말에는 인디아나 대학교에가서 공부나더할가 해요』

최인달씨는 귀국할계획 취소되는바람에 이곳교포들앞에 설수있게 되었음을 무척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날자기가부를 곡목에 대한설명을했다. 『이번에 부를3개곡은 모두 평소제가좋아하는것들입니다. 3곡모두 파불러한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부들수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최인달 씨)

최씨가선정한곡은 너어디로가든지, 영혼의날과오라 내게로 등3개곡. 최인달씨는 박재훈박사가심혈을기울여 갈고닦아놓은 서울코랄창단공연에 한자리를갖게됨을 무엇보다기쁘다고거듭밝히면서 있는힘을다해 독창에임하겠 다고 했다.

바리톤 최인달씨는1964년부터 5년간 세계적인음악가를 배출시키고 있는줄리어드에서 스칼라쉽으로 공부한뒤를이어 금년초에는 독일에있는 악스브르그스 오페라그룹의 맹버로한 약한경력을갖고있다.

이밖에도 최인달씨는만하트넨음악학교에서 대학원코스를마친것을비롯하여뉴욕에있는브르크린과 헌터 만하탄 오페라그룹에서도 연구원으로 폭넓은 음악활동을벌였다.

끝으로최씨는 줄리어드를위시한 미국내여러곳에서 활약하는 우리한국인음악가들이 체정적보조만받는다면 좀더적극적인 음악활동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하고 자질이있는 한국음악도들의뒷받침을 아끼지 않기를 희망했다.

최인달박사의 실제이기도한 최인달씨는 인디아나대학교에서 박사학위과정을마치면 적당한 학교에라도나가서 강의를하면서 연구를계속하겠다고 앞으로의희망을 밝혔다. ☎461—7944.

社 告

『서울코릴』 창단공연
스카티쉬·오디터리엄에서 12월7일 본보 주관으로

합창단 "서울코릴" 의 창단공연이 오는 12월7일 하오7시 시내 스카티쉬·오디터리엄 (4357·윌셔·불러바드) 에서 한국일보 나성지사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날 36명의 남녀합창단원들은 그동안 애써갈고닦아온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교포여러분께 선사하게 됩니다. 서울코럴은 지난2월 로스엔젤스에서 창단된 이후 우리나라 종교음악계의 권위자인 박재훈박사의 정성어린 지도아래 밤낮을 가리지않고 연습을 거듭해왔읍니다.

이들 36명의 남녀단원들은 나성시내 17개한인교회 합창단원 가운데서 재질이 뛰어난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주는 피아니스트 최은산씨가 맡고있읍니다.

이번 서울코럴이 마련한 레퍼토리는 모두 무게있는 곡목들로서 크리스머스 ; 칸타타 "예수그리스도의탄생" 을 비롯한 23개곡의성가와 8개곡의 우리나라민요와 가곡으로 짝차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통속적인 민요중에는 몽금포타령, 진도아리랑, 흥타령, 도라지타령등의흥겹고 활기에찬 곡들이들어있으며 가곡편 역시 동무생각, 자장가, 산들바람, 이별의노래등의 귀에 익은 노래들로 채워져 있읍니다

또한 바리톤 최인달씨가 불러줄 성곡 "너어디로가든지" 등 3개곡은 이날합창의밤을 더한층풍성하게 장식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멜러디의 화음을통해 선교의임무를 다하고 토속적인 한국민요와가곡등을 불러 우리예술을세계 여러나라에 펴보이기위해 창단된 서울코럴의 첫공연에 교포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지사는 이번 서울코럴의 창단공연이 끝난후에도 계속 통합창단의활동을도와 음악을통한 국위선양과 선교사업을 북돋기로했읍니다.

입장권은 1인당 2달러 50센트인데 한미부동산 이나 나성시내 각한국식품점과 식당에서 구할수있읍니다.

1974년 12월 일
한국일보 나성지사

羅城春秋
영어
정봉자박사 (한인영어학원장)

(정봉자 박사)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명언이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란 하루이틀에읽혀지지 않는 법이다. 여러차례 되풀이해 듣고또자기입으로 외여봐야지만 언젠가는 자기말이 되는것이다

유명한 언어학자 로버트·디·스트라우스의 일설에의하면 어떤말이고 서른여섯번 (36회) 이상듣고 말해보지않으면 자기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주장그대로를 믿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수가 그만큼많아야 비로서입이 열려 말을할수있다는 것일꺼다.

한두번 보고 듣는것으로는 도저히 자기말이 될 수없다는것을강조하고있음을 명백히 하는말이라하겠다.

이렇듯 오랜 시간을가며 같은말 (싫지라도 수십번듣고, 보고, 뇌까려보아야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서요」라던가 「그때 뿐이지좀체로 머리에 남아있지않읍니다.」한다는 것도 너무나 교육심리를 모르는데서 오는소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언어란어떤개념이나 사실을 배우는것과 달라 같은말이라도 여러번 들어봐야하고 쉬운 말일지라도 자기가 자기 입을통해 여러번 반복해 보아야되는 것이다. 시간이 걸려야되는 것, 배워서 알아야 하는것 (어린이의 경우도 다름) 자꾸 반복해서 귀에익히고 입에익히고 해야 비로서자타가 이해할 수있는언어가 구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아무리 빨리영어화를 하고 싶더라도어느정도의 시간의 여유를주어야한다. 영어학원에 오면 한달이면 입이열려비로서 마음대로 회화를할수있겠지 하는것은 마치요술사의 마력을 믿어보겠다는심리와같다 하겠다. 초급부터 계단을밟아 차분차분올라가서 드디어 슬랭 (Slang) 을 이해하고 농까지하게 되자면 적어도1년은걸리리라. 물론이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의 영어를 필수한 이들에대한 계산이다. 너무초조하게 생각하지말고, 시간이 가야한다는점에 뒤이어 가져야할태도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지금나이에 배워 질까요?」라던가 「나같은 사람도 배울수 있읍니까?」하고 반신 반의하는 소극적 사고방식은 금물이다. 「배우면 된다」라는 적극적사고방식은 그사람의성공의 50%를 약속해주는 보증수표이다. 물쓰씨의 싸이코 싸이버네틱스 (PSYCHO-cyber netics) 에 의하면 「사람의 성공은 자기가이루겠다는 의욕을품고 생각을 굳히며 정력을쏟는만큼 이루어진다」라 하며 많은이들에게 틀림없이 성공에의길로 갈 수있다라는비결을 보여주었다.

하면된다로 신령, 인내성을 갖이고 꾸준히이끌어가는 지구력(, 시간과정력과 금전을 투자할수있는 용기, 그 무엇에앞서 언어의장벽을 무너뜨려야되겠다는 슬기로움, 참의미에있어서의 자유와 행복을찾겠다는 강한의욕등이 있어야 영어도 배워진다. 「영어 모르면 미국좋을 것하나도 없읍니다.」란 얼마나 우리의실정을 웅변적으로 표현한 말인가.

TOP 뉴스 속보

안전벨트 새장치 운수성서 지시

미 운수성당국은 자동차 안전벨트 부착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려던 안이의회에서 부결되자 그대안으로 "자동차 안전벨트 리마인더 씨스탬을" 마련했다.

이씨스탬은 자동차 벨트를매지 않고 사동을하려면 "시트 벨트를 매시요." 라는 신호가 4초내지8초동안 커지고 또소리가나도록하는 장치로 이루어졌다

미운수성 당국은 이새장치를 75년도 신형자동차에 부착해도 좋으며 75년2월24일 이후에 제작되는자동차는 반드시 이장치를부착해야한다고 밝혔다.

설탕도매값 인하 암스타 제당회사

미국내 설탕제조 최대회사인 암스타회사는 1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설탕도매가격을 내렸다.

암스타 (Amstar) 회사는 설탕 1백파운드당 5달러 20센트를 도매가격에한해 인하 시켰다.

가주 상원 교목에 사상최초로 스님이

칼리포니어주 상원에서 교목일을 새로 맡기로된사람이 기독교도 가아니고불교도라고 해서 화제가되고 있다.

이제까지 신교도나 카토릭아니면 유태교 사제가교목일을해온 전례를 깨고처음 불교승이 채택되었는데 그 주인공은 새크라멘토·불교교회의 주지승인 쇼코마수나가스 님이다.

앞으로 일년동안 상원에서 봉사할 마스나가씨는매일 상원이 개회하기전참석자들이 갖는 짧은기도와묵상을 인도한다.

밀스 위원장 축출 댄서와 스캔들노정

미 하원 예산위원회위원장인 윌버·버·디· 밀스의원 (65) 은 스트립 쇼댄서인 페인·폭스양 과의스캔들로 위원장직을 축출당하는등 정치생명의 위협을받고있다.

밀스위원이 위원장 으로도 위세를 날렸던, 예산위원회 (22명의 하원의원 으로구성) 는 4일상오 모임을갖고 밀스위원장 후임에 알·얼맨위원 (민주당·오레곤) 을 선정하게 된다.

밀스위원은 피곤을 이유로 3일 베세스다 해군병원에 입원했다.

카운티 경찰관모집 한·영어 병용자

LA카운티당국은 한국어와영어를병용할수있는 경찰관 (마샬) 을모집하고있다. 만21세에서 34세사이의 신체건강한 남·녀로서 시민권을 가진사람은 누구나 이번경찰관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나 그이상의실력소유자. ☎974—2765.

서울대 합동 망년회

남가주에 진출한 서울대학교 12개 단과대학동창회는처음으로 합동망년회를 개최할계획이다.

문리대 동창회 김기주회장은3일하오 첫합동 망년회계획을 밝히면서 "단과대학별로 동창회가구성되어있는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자리를같이하게 된점으로 의의가크다"고 말했다.

국제 자동차사 오픈 유태환씨가 2일부터

유태환씨가 2일부터 시내 950 사우스 버몬트아배뉴 (250 호) 에서 자동차 도매회사 "국제 자동차" 를오픈, 영업중이다.

(유태환 씨)

국제 자동차에서는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종류의자동차 (현차 포함) 를 판매하거나 리스해주는 일을하고있다. ☎389—1258

자전거동호인 모집 이현승씨가 주동

바브스 자전거상을 경영하고있는 이현승씨는 한인교포로 자전거동호인클럽을 발족시키고싶다면서 동호인의연락을바라고있다. ☎474—6163

코리아타운 번영회 새 사무실을 마련

코리어·타운 번영회 (회장·양석규) 에서는 이번에 새사무실 (2835 웨스트 올림픽불러바드) 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고있다.

이사무실에서는 코리안버스터널행사도 함께 보고있다 ☎388—1974

동창회 소식

수도여사대 동창회는14일 하오7시 시내 왕관식당에서 정기총회를갖는다.

경북동창회는 오는7일하오5시 이경동회장댁에서정기총회를개최한다.

동창회명단에없는 동문도 꼭참석해달라고. ☎933—9628.

이화여고동창회 (회장·이미화) 는 29일 하오7시시내 바이킹에서 연말파티를갖는다회비는 부부당 15달러.

창덕여고 동창회를 발기하려는 움직임이있다.

양봉려씨 (M&N꽃집) 는 오는12월중순께 동창회를조직하기위해 준비를하고있다

동교동창회는분은의연락을 바라고있다. ☎660—3222.

서치라이트

○…세칭 『어린이고추사건』이 주위사람들의 열성어린 변호로 고소취하단계까지 이르렀다.

○…각박한 미국생활속에 핀 또하나의 인정가화. 우리도 모두 본을받아야겠읍니다

時事漫評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